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개교 60주년에 재다짐하는 수의학의 연구윤리와 미래를 위한 반성

우희중 교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 본고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개교 60주년 기념식에서 발표된 원고임

오늘 수의과대학의 60주년을 경축하는 좋은 날입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자축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경축행사를 통해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공과를 더욱 분명히 하여, 모자란 부분을 반성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창출함으로써 미래를 향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를 맞이해서 옛 선인께서 말씀하신, 일일삼성(一日三省), 즉 하루 중에도 세 번 반성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총장님 이하 여러 귀빈을 모시고 우리의 과거 모습을 겸허히 재평가함과 동시에 짧으나마 자성의 시간을 갖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래에 우리 수의과대학에서 비롯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과학계에 전대미문의 물의를

일으킨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교를 떠났지만, 한때 구국의 과학자로서 일컬어지던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관련 연구결과와 논문게재가 문제되었고, 결국 논문 조작과 연구 부정행위라는 부끄러운 시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시의 혼란스런 분위기 속에서 수의과대학으로서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관심사는 동문인 수의사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당혹스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제2차 세계대전 독일 패망 후, '아담, 너는 어디가 있었니?' 등의 작품을 통하여 히틀러와 독일 국민이 보인 집단 광기에 침묵하고 있었던 당시 독일 지성인들의 개인

적 책임과 자성을 지적했던 노벨상 수상작가인 하인리히 뵐이 생각납니다. 불행히도 수의과대학이 주역이 되어 우리 사회를 그토록 혼란에 빠트리게 했던 당시 사태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마무리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 수의대인들은 어디에 가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며 미래를 위한 반성의 이 자리에서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번 사태에서 그 중심에 있던 이들은 이미 각자의 공과에 대하여 책임을 졌기에 굳이 여기서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이 학교를 떠난 그들만의 문제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처럼 커다란 사회적 파문 속에서 많은 복합적 요소와 원인이 작용했겠지만, 과연 우리는 같은 수의대인으로서, 한 배를 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이 없었을까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박용호 학장을 위시한 수의대 교수들은 새삼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여러 귀빈을 모신 이처럼 좋은 자리에서 오늘과 같은 행사를 통하여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고, 분위기 쇄신과 함께 인류의 보편타당한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개발에 더욱 정진할 것을 겸허히 밝히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솔직하고 용기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장소인 대학에서 진리 탐구의 학문을 제

대로 한다는 것, 연구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굳이 윤리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진리 탐구의 장소인 대학에서 어떻게 비윤리적인 행위로 진리를 탐구하며,

또 그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강단에 올라 어린 학생들을 앞에 두고 학문과 연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생들은 학자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며, 평소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삶의 자세가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반성의 이 자리에서 거창한 구호나 다짐 혹은 세세한 구체적 사항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학자로서의 기본적인 삶과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교육과 학문과 연구를 생각한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쉬운 이익과 명예를 위하여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의과대학은 작은 집단입니다. 이 작은 집단의 구성은 교수, 학생, 직원, 더 나아가 동문 및 학부 모님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한 집단 내에서 서로를 염려하고 관심을 준다는 것은 그 대상이 동료이건, 학생이건, 교수이건, 선후

배이건을 떠나서 잘못된 상대의 모습을 무조건 좋다고 박수치거나 침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 한 집안 식구라고 생각한다면 아부성 격려나 방관하는 침묵보다는 동료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된 선택을 일러주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의 학자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식인으로서의 학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해안과 용기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나 집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사회가 그러니까', '대세가 그러니까' 등의 구실로 용기 없는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학자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타협하는 자세는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게 할 뿐입니다.

세계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느덧 대학사회에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상식보다는 시류에 타협하며 당장 눈에 띄이는 작은 이익과 명예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능력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당시를 되돌아보면 대외적으로는 우리 모두 그러한 시류에 영합하고, 대내적으로는 대학 구성원 간의 소통부재와 잘못된 배려가 바로 우리 옆에서 발화되고 있던 불씨를 더욱 크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한편, 자기반성의 시각에서 보면, 그러한 대형 연구부정 사건은 우리에게 학문과 연구에 있어서 그 과정의 소중함과 더불어 평소의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전체 차원에서 연구윤리 교과목의 개발과 교육이 강화되고, 학부생들에 대한 학문 윤리 교과목이 핵심 교양 과정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체제 역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의대로서는 그 동안 애써 쌓아올린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제는 과감히 과거의 업보를 떨치고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수의과대학은 배아줄기 세포 연구 외에도 다른 많은 훌륭한 연구와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용히 자숙의 시간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 여러 귀빈을 모신 수의대 60주년 경축의 자리에서 자기반성을 통하여 거듭 나고자 합니다.

이제 수의과대학은 우리 사회에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양심적인 수의사를 양성하는 장소로서, 학내 구성원 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세계와 미래를 향해 진정한 일류가 되기 위해 거듭날 것임을 약속합니다.

